

### 〈제 3 주제〉

## 민족이 산과 남북한관계

안 병 영

(연세대 행정학)

학술심포지움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녹화를 하고 해서 한껏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민족이 산과 남북한관계」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자체는 매우 폭이 넓습니다만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여섯 분이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서 다를 그런 문제는 조금 빼고, 가능하면 문제의 초점을 좁혀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잘 집약된 그런 감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족이 산의 역사입니다. 이 주제는 오전에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발표하려는 것과 연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족이 산의 문제가 남북한 체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영향들을 집약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남북한간의 관계, 남북한간의 대립, 갈등, 화합관계 등 이런 남북한간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대화라든가 남북간의 교섭관계와 연관해서 민족이 산 문제를 다루고 결론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이 산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전세기 말부터 민족이 산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때부터 시작한 일제하에서의 민족이 산의 역사는 그것이 남북한관계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대단히 많은 한민족들이 만주(滿州)라든가 간도(間島)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병이라든가 정용에 의해서 역시 많은 숫자의 우리 백성들이 일본이나 사할린 혹은 남태평양 기타 각지로 몰려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해방후에 꽤 많은 숫자가 귀국했읍니다. 178만명이 귀국했읍니다마는 그래도 한 200만명 정도는 해외에 잔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민족이 산의 구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방후부터 6·25 전까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이났읍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민족이 산을 얘기할 때 남하 혹은 북상, 월남, 월북이란 말들이 통용이 됩니다. 대개는 북쪽에서 많이 내려왔읍니다마는 남쪽에서 북한으로 간 그런 사례도 전혀 없지 않기 때 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조금씩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방후부터 6·25 때까지 약 350만명이 남한으로 온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대개 공산치하에서 견디다 못해서 남하한 민족주의자들, 유산자들, 또 지식인들, 종교인들, 군을 피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지면 약 350만명쯤 됩니다.<sup>1)</sup>

또 월북한 사람들도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마는 우리가 잊을 수는 없읍니다. 대개 남로당계(南勞黨系)를 비롯해서 좌익계통의 용공정치인, 또 일련의 문예인들, 문학가들, 이런 지식인들도 얼마간 월북을 했읍니다. 당시에 문학가동맹(文學家同盟)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활동했던 이태준, 임화, 이런 월북한 사람도 우리는 뚜렷히 기억하고 있읍니다.<sup>2)</sup>

그 다음에 6·25 당시를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6·25 당시에는 특히 1950년 12월과 1·4 후퇴 때가 정점으로서 가장 많이 월남을 했읍니다. 이때 한 100만명 정도 월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해방 이후 월남한 우리 동포가 약 500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고 흔히 통칭하고 있읍니다. 우리 나라의 이북 5도청의 한 통계에 의하면 황해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월남했다고 합니다(약 140만명). 그 다음 평

1) 大韓赤十字社, 『離散家族白書』(서울 : 大韓赤十字社, 1976), 64面.

2) 여기에 대해서는 崔泰憲, “越北文化人の悲劇”, 『思想界』, 1962년 12월호부터 1963년 6월호 참조.

남, 함남, 평북, 함북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 중에 130만명 정도가 서울에 안착을 했습니다. 부산에 약 60만명,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순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큰 도시로 많이 몰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3)</sup>

한편 6·25 당시에 월북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숫자는 강제 납북된 숫자이고, 자진월북한 사람도 얼마간 있습니다.

정계나 관(官)에 있었던 많은 인사들, 약 8만명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는, 이 사람들이 강제로 납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하면 의용군으로 한 20만명 정도가 강제로 잡혀갔고, 또 자의로 월북한 용공주의자들도 얼마간 있습니다.

대개 납북된 사람들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지주라든가 회사원, 교육자, 종교인 등 각계각층에서 납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이 산의 네번째 구비를 얘기하자면, 휴전 이후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휴전 직전인 53년 6월 18일에 반공포로를 대거 석방했답니다. 이것이 7,663명으로서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잡혀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자유의 품을 그리워해서 반공포로로 석방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휴전이 된 후부터는 사실상 민족이 산이라는 문제의 큰 줄거리 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1년 이후에 남파된 간첩수가 역시 많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4,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sup>4)</sup>

한편, 우리의 무고한 어민들이 많이 납치당했는데 이 수가 약 4,000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 양민수가 500명 가까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sup>5)</sup>

북한에서 잡아갔다든가, 간첩을 남파했다든가, 북한의 어떤 주도권하에 어쩔수 없이 움직여진 숫자가 약 8,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000만 정도의 남북이 산가족이 그동안 네 차

3) 以北五道廳, 『1976년 現況』 참조.

4) 大韓赤十字社, 前掲書, 101面.

5) 上掲書, 102面.

례에 걸친 큰 구비속에서 우리 역사에 아픔을 던져 주었읍니다.

이어서 민족이 산이 남북한의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짚야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부터 언급하고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남북이 산이라는 것은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그 「소비에트」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산통치에 유리한 사회경제적·정치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노력한 결과, 남북이 산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산독재에 유리한 사회적인 조건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점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김일성(金日成)이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북한에 정치적인 기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민족주의자라든가 토착적인 국내공산주의자와 일종의 연합전선 같은 것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김일성의 세력기반이 조금 다져지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토지개혁이라든가 산업국유화, 노동법령 등을 통해서 사실상 민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은 키다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거기서 살기보다 자유를 찾아서 남하하는 것이 좋다 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즉 350만명 정도가 남하했읍니다. 이 중에는 민족주의자들, 유산자(有產者)들, 지주 등의 「부르죠아」계급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읍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었고,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굳히는데 아주 불필요한 존재들이었읍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월남을 조금 막기도 했읍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것을 용납했다고 보는 것도 과히 틀리지 않겠읍니다. 따라서 월남민은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그것이 「소비에트」화를 훨씬 더 가속시켰다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북한체제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계층이나 집단들이 전부 남하한 것은 아닙니다. 조만식(趙晚植) 선생과 같은 민족주의자들, 또 이

북 5 도연합노회(以北五道聯合老會)의 일부, 혹은 조민당(朝民黨), 천도교 청우당(天道教青友黨) 등의 잔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과히 많지 않아서 강한 대항세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산정권에 유리한 정치사회적인 그 기반이 조성되었고,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동질성(同質性)을 높혀 놓았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社会의 정치내적인, 구조적인 야(野)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많이 없어버렸다, 즉 잠재적인 야적(野的) 정치세력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이 북한社会의 전체주의적인 통치의 연속성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조에 우리가 유교정치에 의해서 덕치정치(德治政治)를 했다고 합니다만 털어놓고 얘기하면 그것도 독재정치였던 것입니다. 또 일제 36년 동안 아주 잔혹한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곧 뒤이어서 공산주의 독재로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구조적인 야(野)의 세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런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통치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었다는 것이고 또 개방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다음과 같은 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민가 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인(技術人) 혹은 전문인(専門人)들 중 많은 숫자가 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북한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치,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들을 손실했다는 측면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더 부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에 월북한 사람도 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야 되겠습니다. 월북한 사람들이 북한체제의 정통성을 높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납북을 했다든가, 혹은 자진월북을 했다든가, 여하튼 간에 월북한 사람들을 일종의 체제정당화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가하면 대남전략에 대대적으로 이용했다 하는 것도 대개 알고 있습니다.

월북한 사람들로는 특히 남로당계(南勞黨系)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남한에서 극렬한 정치활동(政治活動)을 하다가 북한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박현영(朴憲永)이 북한에서 한때 대단히 중대한 정치적인 역할도 했으니다마는, 6·25가 끝난 뒤에는 전쟁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속죄양으로 이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월북한 사람들의 잠재적인 혁명역량이 소진되면 가치없이 처리해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가슴아픈 일입니다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월남자의 가족들도 그 후에 계속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학가들, 문예인들, 다른 월북한 지식인들도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대개 숙청하고, 탄압하고 해서 사실상 북한사회에서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할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가지 대남전략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1958년에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정요인(臨政要人)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조소昂(趙素昂)씨가 최고위원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김억(金億)과 같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내세워서 일종의 위장적인 평화단체를 만들어서 남북대화라든가 대남전략(對南戰略)에 오랫동안 이용해 왔습니다.<sup>6)</sup> 이들도 조금 이용하다보니 별 쓰임새가 없게 되니까, 대개 투옥시키거나 감금한다든가 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월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제 뜻을 별반 펼치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해외동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일교포가 많이 북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데려갔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재일교포가 북한을 찾아서 갔다” 이렇게 되면 대남전략상에도 대단히 유리하고,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대개는 조금씩 자유화의 바람을 안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일도 못하고, 얼마 안가서 체제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탄압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6) 上揭書, 180面以下 및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下卷(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46面~48面.

기타,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을 것 같지만, 일종의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라든가, 또는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등을 내세우며 북한은 해외동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가지 발상을 해왔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감성에 영향도 해 보고, 해외동포에게 추파도 던지는 일을 많이 하였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이런 것들을 대개 전략적인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외동포 수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대개 우방지역에 167만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중공에 220만명, 소련에 약 40만명 이리하여 모두 427만명 정도입니다.<sup>7)</sup>

이것은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의 대결관계든, 화합의 관계든 해외동포가 차지하는 비중, 해외동포에 대한 전략적인 점검의 문제성 등은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북한동포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고, 우리 정치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한 500만명 정도 늘었으니까 대단한 것 이지요, 북한인구에 비해서 남한인구가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가하면 대한민국의 「남북한 전체성(全體性)」 즉, 전국성(全國性), 전체적인 대표성, 전국민성 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는 반쪽인데 북한동포가 500만명이나 왔기 때문에, 과거에 남한에 살던 사람에 텃붙여서 이 많은 숫자가 하나의 새로운 용광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땅은 한쪽 남쪽입니다마는 남북한이 다 이쪽에 산다는 풍요하고, 넘치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정통성(正統性)과 같은 것을 상당히 높여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모든 것의 새로운 변혁의 아버지”라고 하듯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변동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7) 朴容萬, 『景武臺秘話』(서울 : 韓國政經社, 1965), 52~54面 및 韓昇洲, “第1共和國의 遺產”, 陳德奎(外), 『1950年代의 認識』(서울 : 한길사, 1981), 41면.

그런데 이런 사회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이처럼 많은 숫자가 우리에게 앉다는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남한의 사회적인 유동성이나 사회변동과정을 촉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과 부산에만 한 200만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시화에 대단한 기여를 했고, 개방화, 다원화 등, 어떤 풍요의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촉진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산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방후에 우리 나라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북한 출신입니다. 이승만(李承晚)씨, 김구(金九)선생 같은 분들이 대개 북한 출신입니다. 그런가하면 예컨대 이박사(李博士)가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초당적(超黨的)으로 사람을 찾자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북한동포에 대해서 뭔가 따뜻한 배려를 해야 된다, 즉 북한에서 큰 사람에게 가능하면 총리(總理)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이윤영(李允榮)씨입니다. 그러나 한민당계가 주도했던 국회가 인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영씨가 물론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sup>8)</sup>

얼마 후에 다시 이윤영(李允榮)씨를 총리로 생각했던 것은 북한동포의 숫자가 500만명 정도 되면 정치세력으로서 혹은 여론집단으로서 정치적인 발언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우리가 뒤늦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서북청년단(西北青年團)이라든가,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 또는 반공포로들이 석방이 되어서 조직한 대한반공청년회(大韓反共青年會)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많은 청년운동이라든가 반공단체 등등에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후 반공일선에서 움직이던 젊은이들이 많이 관여했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1 공화국에서 월남주민들의 지역단체가 정치적으로 제법 이러저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많은 분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963년에 고려대학교 한培浩(韓培浩)교수께서 한국정치지도자의 사회적

---

8) 韓培浩, “韓國政治指導者의 社會背景—韓國政治엘리트에 對한 統計的 調査結果” 『思想界』 1963년 11월, 80~87面.

인 배경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sup>9)</sup> 여기서 장차관(長次官) 또는 국과장(局課長), 삼선(三選)이상의 국회의원, 주미일대사(駐美日大使), 군의 참모총장(參謀總長) 등 4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인 배경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재미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1963년 것으로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정치지도자중에는 서울출신이 10.8%인데, 평안도 출신이 11.2%로서 서울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밖에 함경도 출신이 6.5%, 황해도 출신이 4.0%입니다.

황해도 출신이 월남민중 숫자상으로 제일 많은데, 이들 중 정치엘리트로 부상한 숫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월남에서 남쪽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쌓으면서 중요한 정치엘리트로 부상한 숫자가 이 정도라면 이 또한 대단히 큰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에도 「Der Bund der Heimatvertriebenen und Entrechteten」라는 일종의 실향민연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실향민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당(黨)이었습니다.

당이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때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대개 1957년경부터 다시 스러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나 「슐레스비 헐슈타인」 주에는 실향민들이 많아서 한때는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이 조직이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겪는 일입니다마는, 세월이 가고 또 실향민 제1세대의 나이가 늙어가고 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역할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름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민주당이라든가 사회민주당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이 당이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해서 이 실향민들의 정치적인 발언권은 배려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막짧막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창군작업(創軍作業)과정에 북한에서 월남한 많은 분들이 대단히

---

9) 安秉永, “統一政策의 上位論理와 南北對話의 姿勢”, 『통일문제 학생 세미나』(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3), 3~11面.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주역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월남인들이 아주 견실한 성과 노동을 통해서 가장 부지런한 상인상(商人像)을 펼쳐주었습니다.

대재벌(大財閥)들이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기반이 튼튼한 큰 기업체라든가, 동대문시장(東大門市場)이나, 혹은 남대문시장(南大門市場)의 유통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상권(商權)을 잡았더든가 해서 월남인들이 경제적으로도 꽤 뚜렷한 위치를 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남한 사람치고 어디가서 식모살이하는 사람은 없다”고.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에도 월남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독교계의 큰 기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경직목사님이나 김재준목사님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방향은 다릅니다. 한경직목사님은 보다 보수파 신학이고, 김재준목사님은 사회구원이라고 할까 그런 쪽을 하시는 신신학(新神學)쪽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가름하는 큰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노기남 대주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용산신학교를 나오시고 주로 서울서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이북출신이시고, 지학순주교님도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교육계에서도 월남한 분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종교와 교육이 연결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숭전대학(崇田大學)이라든가 오산학교(五山學校)와 같은 것들이 월남한 사람들의 학교이고, 서울중학교 같은 경우에 오래 교장을 하던 김원규선생, 거기서 교편을 잡았고 훗날 다 유명한 대학교수가 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월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월남가정에서 공부를 썩 잘하면 서울중학교에 보내는 이런 풍조가 있었던 듯합니다. 대광고등학교도 그런 예의 하나일 수 있고, 근래에는 신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월남한 종교계의 교육열하고 연맥됩니다.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사상계, 문화계에서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한국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감로수와 같은 영향을 주었던 「사상계(思想界)」라는 잡지의 주역들이 전부 월남한 분들

이란 사실입니다. 장준하씨 라든가, 합석현씨 라든가, 김준엽선생, 안병옥선생, 이극찬선생, 차기벽선생, 이런 분들이 다 월남한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주역은 평북의 신성학교 출신들이었음을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훗날 마지막에 부완혁선생 같은 분도 간여했읍니다마는 거의 예외없이 북한에서 월남하신 뛰어난 지식인들이 우리 문화계에 오랫동안 긍정적인 의미에서 큰 영향을 주었읍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흥사단계도 대개도 월남한 인사들이 많았읍니다. 백년준씨 라든가, 장이옥씨, 장면씨 라든가 기타 많은 분들이 대개 월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월남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숫자가 500만명임을 넘어서, 그 질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두 마디로 집약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남한이지 이것이 전체 대한민국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분들의 보다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었읍니다.

이 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읍니다. 어떤 분은 일종의 체험적인 반공주의자입니다. 북한에서 고생도 하시고 탄압도 받고 해서 자유가 그리워서 왔기 때문에 모든 가치에 앞서서 반공이라는 것이 첫째 가치였던 그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중에는 반독재투쟁에 앞장섰던 보다 구원적인 자유주의자·해방주의자가 있었으므로, 이런 분들은 독재(獨裁), 공산주의 및 다른 권위주의적·전체주의적인 체제든, 이승만 독재체제 등에 대해 반독재(反獨裁) 투쟁에 앞장을 섰던 분들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남한 출신입니다만, 전형적인 월남한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즉, 전형적인 평균적 성향을 제가 그려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해보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작업이었읍니다. 대개는 두 가지 생각이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분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같은 것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은 반공의식이 강할 것입니다.

통일과 반공,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어긋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강하면 서도 반면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혹은 저 친구들하고는 아무 것도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반공적인 내심에서 우러나는 또 하나의 생각이 아주 복잡하게 작동하는 심리적인 덜램마를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민족이 산이라는 문제는 금세기 인류의 가장 상징적인 비극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대화와 연관해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남북대화문제는 우선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종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차원, 다른 또 하나는 정치현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 하는 매우 감성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보다 냉혹한 정치현실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항상 같은 궤(軌)를 갈 수는 없지요. 민족이 함께 한묶음이 되어야겠다는 염원이 대단한데, 정치현실은 차디차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쳐서 그 열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민족주의적인 입장은 열기에 지나쳐서 감정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일 수 있고 일거에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반면, 정치현실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면 될 것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차원입니다. 뭔가 하면, 일종의 타협의 차원 즉 타협전략하고, 승부의 차원 즉 승부전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뭔가 작은 매듭이라도 하나씩 풀어가면서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남북대결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기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하면서, 뭔가 한판 이겨야겠다는 승부의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승부의 세계로 끌고가는 그런 면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항상 궤(軌)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궤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북대화 및 남북접촉에 있어서 이산가족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산가족이라는것은 가장 원초적이며 인간적이고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입니다.

니다. 헤이진 이산가족이 한 핏줄의 생사를 몰라서 해매고 있기 때문에 생사를 좀 알아보자, 어떻게 문틈이라도 해서 서로 글을 통해 얘기를 나눠 보자, 혹은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끝내는 결합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의 문제고, 체제 이데올로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가장 민족적인, 적나라한 민족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현실하고 연관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이 문제하고 연관해서 생각되는 것은 이전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산의 문제가 70년대 이후에 남북대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입장을 차지합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최두선총재가 특별성명을 하고 이산가족문제, 이것 좀 해결해 보자 하고 북한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수십차례의 예비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거쳐서 몇번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 문제에 뭔가 서광이 비치나 했읍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한때의 백일몽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북간에 변칙적인 대화가 몇번 있었읍니다마는 아직 이 문제가 별로 풀려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매듭으로 생각하고 풀려고 합니다마는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대개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거에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꿈이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점진주의적으로 평화정책을 해가면서 통일의 길로 나서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인간의 원초적이고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풀면, 그 다음에 자꾸만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어서, 끝내는 정치적인 문제도 타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문제를 우리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적화통일을 하는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면, 우리도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공산주의를 다 내쫓고 민주주의 통일하고 공산주의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화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낫은 목표, 또는 최소한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하면, “정 안되면 북한이라도 견뎌나가야 되겠다”, “북한이라도 생존해야 되겠다”, “북한체제가 와해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남북대화가 실행되면 어쩔 수 없이 북한체제가 조금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밀폐된 그런 사회에 자유화랄까 개방의 물결이 조금씩은 밀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같은 미중유의 폐쇄사회로서는 대단한 충격이 올 것입니다. 북한이 이것을 감내하고 이것을 견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북한 자신이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자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도적인 입장 또는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한 첫번째 시도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전히 승부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이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하나의 무서운 전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체제가 자칫하면 와해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겠지요. 개방화의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고, 승부전략의 차원에서 북한의 폐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족이산문제하고 연관된 남북한 전략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전략임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고, 전국민의 어떤 열의 혹은 뜨거운 정이 여기에 뭉쳐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남북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우회적인 방법과 다면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사람들이 마음을 풀고 나올 수 있는 다른 전략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북한측이 근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얘기를 많이 하고 최고민족연방회의(最高民族聯邦會議) 등을 거론하고 있읍니다만, 사실상 민족이산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들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高麗民主聯邦共和國)」수립 이후에 실시할 「10대 시정방침」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도 이산가족문제를 제기한 항목이 없읍니다. 다만 다섯번째 항목으로 “남북한의 교

통 체신 수단의 이용보장” 같은게 필요하다고 언급할 뿐입니다.<sup>10)</sup> 그래서 이 문제도 그들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KBS가 주도했던 이산가족 찾기운동의 열풍 속에서 저로서는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뭔가하면 저는 나이가 과히 많지 않음니다마는 6·25를 열 살 넘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족이 산의 슬픔이랄까 그런 것이 깊게 가슴에 차닿는 연령입니다. 저나 제 친구들은 경우에는 TV 채널을 자주 돌렸고 또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희 집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조금 울먹울먹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의 만화경을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냥 무감각할 수 있는 세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대간의 인지(認知)의 차이 같은 것도 느꼈고, 또 하나는 실향 1세대가 굉장히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젊어서 온 사람들도 이미 장년의 고비를 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6·25 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 가면 이북말소리를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거의 서울말소리처럼 들었고, 주변의 친구들도 이북말소리하는 친구가 하는 많았는데 이제 전형적인 이북말소리를 듣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굉장히 줄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족이 산의 문제가 전부가 함께 느끼는 당시 대문제로부터 점차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하는 어떤 절박감 같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역시 민족이 산의 문제는 아주 어린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를 함께 호흡하는 우리 민족 전부가 함께 뜨겁게 느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너나없이 우리 전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아무리 갈등과 대립이 침에 화되며

---

10) 安秉永, “南北韓會談에 거는 기대와 걱정”, 『新東亞』, 1980년 3월, 154~161面 및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白書』(서울 : 國土統一院南北對話事務局, 1982), 243面.

라도 민족이 산의 원초적인 슬픔,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풀어야 되고, 그것은 정치문제 이전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통일의지가 식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3 주제 토론〉

사회 : 이 흥구(서울대 정치학)

토론 : 강 인덕(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 상우(서강대 정치학)

최 문현(남북대화사무국)

#### 사회

고맙습니다.

이 산가족의 재결합이라는 감격으로써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된 민족이산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결, 남북한의 갈등, 이것들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민족이산의 문제를 금년도에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러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분단이라는 것이 단순한 국토분단이나 물리적인 국토분단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민족분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이해되었고, 둘째로는 이 산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의 단위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나아가서 민족 전체를 한 단위로 생각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 산의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할 때는 역시 민족통일이라는 대과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이 산 재결합과 통일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길이 대단히 혐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남북한의 관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극이나 분단이나 갈등의 대단히 어려운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민족이산과 이 산가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 산가족을 중심으로 민족이산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특히 6·25 전쟁과 같은 불행한 경험 또 그 경험이 수반했던 혼란에서, 예컨대 피난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나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1차적인 생각을 많이 한 데 비하여 오늘 안교수께서 그러한 개인, 가족의 경험이 모여서 하

나의 민족적 단위에서 생각할 때 어떤 시각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남북한의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그것이 가져온 여러 가지 결과 등과 연결시켜서 체계있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로서 대단히 궁금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북한은 어떤 식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또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남북대결 특히 대남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 내지는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도 관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문제 이것과 연결했을 때는 이산가족의 문제라든가 넓게는 민족이 산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공동관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남북문제에 대단히 고명한 세 분의 전문가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선생님들의 의견 특히 안박사께서 지금 발표해 주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또 제가 잠깐 언급한 남북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 이런 것을 일단 듣고 토론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정부에서 오래 이 문제를 다루셨고 현재는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강인덕박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강 인덕

안병영교수님의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앞에 정면으로 앉아 계신 두 분은 남쪽분이고 토론에 참가한 우리 셋은 아마 이북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선생님께서 우리 월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공헌을 했나 하는 좋은 면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실향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부터 민족의 이산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홍구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산문제를 푸는 것은 곧 통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로 가는 길이 민족이 산문제를 완전히 풀 때 가능하다면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서로 합쳐질 때 무엇인가 이루어질텐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북쪽의 호응이 맞아 들어가느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소리 안나는 상태라면 민족이 산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북쪽이 민족이 산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이 산가족의 재회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 가능성 있는 것이냐? 이것은 민족이 산문제에 대한 장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승부의 논리라고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것을 북쪽에서 별이고 있느냐? 어느 정도 심한 것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분단된 나라는 우리 나라 뿐이 아닙니다. 민족이 이산된 나라도 역시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 동서독간을 우리가 많이 비교도 합니다마는, 역시 민족이 이산된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독간에는 여러분께서 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완전히 두 개의 국가 형식으로 되었읍니다. 이런 점에서 서독은, 한 민족이 두 체제를 가진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으니 게르만민족은 하나다 하는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민족의 결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견지에 서 있읍니다. 그러나 동독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문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 3월 19일에 동서독간에 국가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독의 슈토프수상과 서독의 브란트수상간에 오고간 연설내용이 있읍니다. 동독의 수상인 벨리 슈토프의 연설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슈토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읍니다.

“20년전부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민족의 단일성에 대해 언급한다든가 민족의 단일성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무근거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 슈토프는 동서독은 이미 두 개의 민족으로 완전히 분열되었다 하는 전제입니다. 민족의 단일성 따위는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민족의 단일성이 깨졌느냐?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개념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발간한 정치사전 속에 나와 있는 민족의 개념을 소개한다면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지금 슈토프의 얘기는, 말은 같다, 그러나 경

제생활,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고 너희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냐,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심리를 갖고 있고 너희는 자본주의적 심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이 같다는 것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전제하에서 동독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경우는 계속 민족의 단일성을 주장합니다. 민족의 공통성을 주장합니다. 지금 동독의 경우는 민족의 단일성 허구를 버리라고 얘기하며 민족은 둘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족재회문제, 동서독간의 왕래문제 등 여러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일성의 경우는 민족의 단일성을 주장하고 공통성을 주장하면서 가장 인도적인 이산가족재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가? 그가 견지하고자 하는 민족이산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북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갖고 나왔읍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이라는 책 속에는 “적십자회담이 뭐냐? 낮은 형태의 정치합작이다”라고 규정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로 인도적인 입장에서 남북한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작의 낮은 형태 즉, 높은 형태로 가는 단계로 봅니다. 높은 형태는 뭐냐하면 아까 안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민족회의나 고려연방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는 낮은 형태이며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지 체제를 떠난 인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족의 공통성, 단일성 이것으로써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정치전략, 대남전략을 카바할 수가 없고, 이런 의미에서 우선되는 것은 김일성이 얘기하는 정치의 문제이지 인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얘기에는 바로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나라의 단일성, 공통성, 운운하는 속에서 정치적인 산술이라고 할까, 기만 용어의 장난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많은 세로운 세대들이 나왔읍니다 만 우리와 같이 6·25을 경험하지 못한 세로운 세대의 출현으로서 그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감상적인 것, 민족에 대한 애착, 사랑 같은 것,

감상적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이용해 보자 하는 전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가 얘기하는 민족의 공통성이란 반제국주의 투쟁, 반미투쟁을 얘기합니다. 저는 북쪽에서 민족의 이산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표시하려면 그가 규정하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규정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하기를, 통일문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치열한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산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쪽이 이미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바뀌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바뀌면 통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안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승부의 논리에서 귀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민족이 산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전혀 그러한 민족의 개념규정이나 통일에 대한 개념규정을 바꾸었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가지 전략 전술을 통해서 우회해서라도 접근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부단히 개발하는 길만이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

아까 인박사께서는 우리가 민족이 산문제 또 이것의 해결 등을 생각할 때 오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읍니다. 우리의 규범적인 차원이나 또는 넓은 뜻에서 민족적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염원이 한쪽에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정치현실을 본다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동시에 충분히 감안하고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내나 하는 것이 일견 모순되지만 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박사님 말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적어도 북한의 경우는 이 전제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는 뜻에서는 대단히 선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러한 북한의 입장을 알면서도 이 민족이 산의 문제를 해

결하고 또 민족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피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민족통일문제 또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술적 연구를 하고 계신 서강대학교의 이상우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이상우

안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가족문제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박사께서 이 산가족문제가 북한 및 남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통일문제를 전망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남북한 분단 이후에 약 500만명이 월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북한사회의 한 부분이 남쪽으로 옮겼던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구성 자체를 바꾸었고, 남한의 사회구성 자체를 바꾸어서, 북한의 사회와 남한의 사회를 이념을 벗어나서라도 이질적인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은 주로 교육받은 사람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공산화를 촉진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국제회의에 나갔을 때에 외국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공산화된 나라 중에서 동구라파의 경우는 포츠담사전이라든가, 혁가리사태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사태가 있었고, 베를린사태가 있었는데 왜 평양사태는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안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대답을 했었습니다. 북한에는 공산화를 저지 할만한 그러한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교육 받은 사람들이 전부 월남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러한 평양사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쪽을 얘기한다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라든가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북한 분단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됩니

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한다면 북한은 아래계층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평면적 사회인데 반해서 남쪽에는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박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북한이 말한 통일은 인민간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인민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계층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면, 북한은 전체가 프롤레타리아고 남한은 복합사회기 때문에 그들에 대응하는 인민계급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중추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력이 북한에는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소위 대남공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전술적인 이점을 가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노력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민족화합, 민주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모두 수용하는, 그래서 하나의 민족사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용적인 정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조금 전에 강박사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급적인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북한의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수평적으로는 통일할지 모르지만 수직적으로는 오히려 분열시키는, 즉 남한에 있어서는 인민계층만을 수용하고 그 이외의 계층을 소외시키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게 내다 볼 때 다른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읍니다마는 남북한간의 이런 기본적인 사회구조의 차이 때문에 타협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이 이산가족문제를 조금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민족적 염원은 통일입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이 얘기를 해 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통일 문제를 제일 차적인 민족의 과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의 통일의 정책을 분석을 해 본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답입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 전체가 살아가는 생활공간의 해결합 뿐이냐? 그렇다면 그

것은 영토적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홍구박사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했으니다마는 우리가 통일을 논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실지(失地)를 다시 대한민국 영토에 결합시키는 그러한 영토적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사회의 일부인 북한동포를 수용하여서 앞으로 하나의 민족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북한동포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의 북한동포에 대한 동포애라고 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밀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통일의 당위를 얘기할 때,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북한동포를 우리의 동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위 민족동질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이산가족 재회운동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다시피 이번에 KBS에서 주관한 이산가족 재결합문제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이산가족은 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고 하면 이산가족 재결합운동은 큰 성공을 못 거두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통일정책을 밀고 나가고 우리의 통일정책이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북한동포와 다 같은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자각심을 근거로 한 북한동포에 대한 동포애, 이런 것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잊혀져 가는 민족단일성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북한동포를 우리의 민족의 일원으로 자각심을 높여가는 운동을 전개해야만, 우리의 통일정책이 당위성을 입증받고, 그리고 전체 우리 민족성원의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굳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만일 우리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피하고 해결하려면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또는 타협을 통해서 이를 수 밖에 없다 하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1971년 이후에 많은 남북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단 한 가족의 재결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고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남북대화의 일선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오신 남북대화사무국의 최문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 문현

금년도에 KBS가 이산가족찾기사업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환호와 지지를 받고 마치 이산가족찾기는 KBS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대한적십자사가 71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측 면에서도 이산가족찾기를 제1주제로 내세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남북대화, 이산가족찾기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아까 강인덕박사 말씀대로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상대가 반대하고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불운하게도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요즘도 만나면, 전쟁이 없다는 상태의 평화 그 이상의 무엇을 해야 된다, 동서독간에 전쟁이 없다는 그 상태의 평화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산가족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벌써 전쟁이 없는 상태 이상의 어떤 민족공통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산가족찾기조차도 되지 않은 거의 원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30년동안 전혀 접촉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사업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의도나 배경은 서로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고 어떤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자, 그리고 대단히 급한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광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자, 그런 소박한 의식에서 이 회담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의에 대해 북한 사람들의 첫반응은 대단히 거창하게 나왔고 그들의 논리전개는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71년 8월 12일에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하고 이를 후인 8월 14일에 첫반응이 왔습니다. 전문에 보면은 회담에 대단히 적극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표시했습니다. 전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남조선 측에서 적십자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실은 북한에서 오래 전부터 제의한 것을 남쪽에서 받아들인 것은 때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제의했는데 어떻게 이산가족만 찾아줄 수 있겠느냐, 친척 친우를 찾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가족찾기가 아니라 인민들의 자유스러운 왕래가 사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 실무자들은 좀 당황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술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프로급입니다. 회담이 진전될수록 이산가족찾기 사업이 본질적으로 무서운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후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창한 논리로 대응해 오던 사람들이 본회담부터는 심지어 통일만 되면은 이산가족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바로 통일사업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남조선측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산가족은 북조선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거창한 회답을 받았을 때하고 2년 후에 그 회답을 낼 때 뒷걸음질치는 논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제적십자연맹, 또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사위원회 이런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서 남북대화를 어떻게든지 실현시키려고 인도주의사업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상대방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아까 주제발표와 토론 속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목적이 남북간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같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북한사람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지나가는 하나의 수단의 편법으로 잠깐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이산가족 중 아까 주제발표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체제를 지키는 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북에서 내려오신 반공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산가족이라는 대상이 대단히 소중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보아서는 혁명을 반대하고 수령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친 사람이고 조국을 버린 적대세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체제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업을 할 생각은 전

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가족사업의 대상을 계급하고 성분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선 본질적으로 이 산가족찾기 사업 자체에 마음이 없는 것이고 적십자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이 적십자 인도주의 사상에 대한 관념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네바의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모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적십자 이론가인데 그 분의 얘기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neutrality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이 아니면 나다. 그런데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은 사상과 체제를 초월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우선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중립이라는 것은 적보다도 더 혐오하는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적십자회담 자체가 그들의 체제로서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로서는 진실로 해 나가기 힘든 그런 하나의 대화방식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산가족찾기 사업 그 자체는 이 산가족을 찾아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 산가족사업을 통해서 통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수단적인 성격도 있읍니다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다, 흩어진 겨레를 만나게 한다, 이 자체는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아까 토론자들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하나의 영합전술, 적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어떤 평화적인 노력, 민족적인 어떤 감정에 영합하는 어떤 선전적 논리에 합당한 그런 정도로 이 회담을 이용해 보자 하는 그런 전혀 다른 목적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회담이 안되었읍니다.

그런데 남북적십자회담은 그래도 북한사람들이 중단하지 않고 7년동안 계속했읍니다. 당시 공식적인 접촉을 보면 남북대표가 약 122회의 회담을 했읍니다. 그 중에 적십자회담이 82회니까 전체 122회 중에 약 70%가 인도주의 사업이고 이 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사람들하고 회담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여러가지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이 산가족을 찾기 위한 인도적인 회담이 7년간 계속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7년동안 공산주의자들을 이끌어가고 회담을 주도하면서 이 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북한사람들도 이 회담 자체가 너무 명

분이 크기 때문에 일찌감치 중단시키고 싶었지만 중단시킬 명분이 없고, 대화를 끊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7년동안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지금 체제로서는 그 사회를 밀봉시키고 외부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최대의 과제인데, 과연 이 산가족찾기 사업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응해올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회담에 종사한 실무자로서는 근본적으로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요즘 갖게 됩니다.

### 사회

감사합니다.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나중에 또 시간이 전혀 없어서 기회를 못드릴까 걱정이 되어서 방청석에서 질문이라든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 분만 지금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 홍 태인(성균관대학교 2학년)

먼저 앞서 여러 교수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하고, 반평화적이고 독재집단인 북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고 오늘 새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이 산가족 찾기가 실패했고 앞으로의 통일에 난점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71년에 시작했던 남북대화때 이 산가족찾기를 쭉 추진해 오신 실무자이신 최문현위원님께서 이 산가족찾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KBS 이 산가족찾기 방송에 7월 11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봉사하며 참여했던 학생입니다. 나름대로 느낀 것도 많았는데 근본적으로 KBS의 이 산가족찾기 열기와, 그리고 제가 어려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971년 이후에 북한에서 대표가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고 할 때 실향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 산가족찾기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왜 10년이 다 된 오늘에 와서, 즉, 남한의 이 산가족을 찾아주려고 하는 생각은 10년뒤에 와서 한 PD의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착상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10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이산가족찾아주기를 북한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남한만에 서라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문제를, 10년동안 왜 생각을 못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

그러니까 71년에 다들 직접 관계하신 분들이 많아계신텐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만,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문제같은 것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의제까지 되어 대단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런 제약이 없는 우리 사회 안에서의 이산가족 찾는 노력 같은 것이 왜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는지 하는 데 대한 답답함 같은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 강 인덕

지금 이산가족찾기운동이 KBS의 브라운관을 타서 각 가정에 전달이 정확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것입니다.

저는 이북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동창도 있고 많은 군민회, 여러 기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에서 온 우리들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동창회다, 혹은 각직장 군민회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KBS의 이산가족찾기운동에서 찾은 가족하고, 뒤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찾은 가족하고 어떤 쪽이 많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내무부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준 가족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브라운관을 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었지요. 한국일보가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매스미디어가 가진 하나의 위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산가족이 나오는 1953년 휴전과 동시에 가족찾기운동을 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속에 전달되는 순간이 아주 극적으로 TV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500만명에 달하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조직을 통해서 혹은 모임을 통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과거에 있던 것은 여러분이 없었던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과

거에 계속되었던 것이 브라운관에 좀 비쳤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이번 KBS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는 뜻에는 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단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 우리가 국민으로서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는 단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항상 민족이다 국 가다 하는 큰 단위만을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회담 등에서 의제로서 나타나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제 개인,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점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번 KBS에서 여러가지 감격적인 순간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느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은 이런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자리가 가지는 의의는 뭐냐하면, 한바퀴 다시 돌아가서 가족이나 개인의 단위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것을 느끼는 반면, 이제 다시 관점을 돌려서 그러면 그것이 다 집합된 민족이라는 차원, 다시 가서 볼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 한 분만 질문이 있으면 해 주세요.

### 이 태만(서울사대 1학년)

강인덕 박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박사님은 김일성의 본성들을 잘 째뚫어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박사님의 그러한 주장이 과연 우리가 대결하고 있는 대상이 김일성 지배집단이냐 아니면 2,000만 북한주민이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고 북한이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지배집단의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범죄행위책임자가 북한주민 전부로 인식되어 반김일성이 반북한(反北韓)으로 비약되어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부르짖는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규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강 인덕

나는 어떤 모임에서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새 통일논의를 보면 양정권(兩政權)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통일논의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 왜 민중적 입장에서 통일논의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일문제를 북한동포의 해방문제, 북한동포와의 동질성 회복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지금 김일성정권을 생각지 않고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의 김일성정권의 위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몇십배 강력한 것입니다. 북쪽에 계신 우리동포들을 다른 민족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화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아까 프롤레타리아 대 프롤레타리아의 대화라고 할 때 이상우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화의 대상이 있지마는 북쪽에는 대화의 대상이 없다는 말씀은 북의 지배체제는 김일성정권에 의해서 확고히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 집단의 정체의 변화가 없는 한 민중과 상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북한동포들을 계급적 성격부터 인민으로 규정해버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김일성정권을 제외해 놓고 북쪽민중과 대화를 해 보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지배체제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의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 북쪽 내부의 저항이 반드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8년의 프라하의 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태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사는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를 희구하는 그 마음,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비인간화의 상태로부터 인간화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난다, 밀폐되었다고 해서 자유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유주의적인, 독재에 저항하는, 세습왕조수립에 저항하는 북쪽의 인텔리 저식인들의 저항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극히 적다, 그러나 이것이 커질 가능

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를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정권의 약화, 그들의 정책의 변화, 이것을 전제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역량이 북한동포들에게도 가고,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재결합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2,000만 동포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

이미 예정된 시간이 넘었읍니다.

그러나 발표하신 안병영교수를 비롯해서 아주 짧게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 면 한두 말씀씩 해 주시지요.

#### ○ 안 병영

제 발표의 미진한 부분을 세 분 선생님께서 골고루 채워주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꽤 말씀을 들으면서 한가지 생각을 해 보았어요. 뭔가 하면 “민족이 산의 슬픔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통일이다,” “통일은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평생 아파트에서 생(生)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우선 편리하고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멀지 않거 때문에 그냥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만, 아이들도 좀 커지고 하 면 언젠가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좀 땅도 있고 넓적한 데다 “이것이 내 집이다” 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나의 삶이 라는 것이 과도적인 삶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것이지 여기서 완전히 살 것은 아니다 이런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돈암동에서 살았는 데 거기서 이 집은 내집이고 일생을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감정은 영 다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적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긴 역사의 여정 속에서 보면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해도 이것은 한번 지나가는 과도기일 것이 아니냐, 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먼 훗날에 우리가 돌아보면 그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도 한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을 저는 염원합니다.

폴란드같은 나라는 자유의 가치를 올렸고, 바웬사를 낳았읍니다. 폴란드

는 역사상 한때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세 나라가 몇 번씩 갈라먹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던 것이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고 아주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그냥 어떤 전략적인 문제, 지나치면서 생각해 보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중지(衆知)를 모아서 풀어야 할 문제이며, 민족이 산의 문제는 끝내는 통일속에서 새롭게 결실될 수 있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

오늘 민족이 산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어려운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안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민족이 산, 특히 이 산가족의 문제가 저에게 대단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상당히 실존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민족과제인 통일로 향해서 한걸음 앞서가는 그러한 예지를 마련하는, 그런 바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